

(문법1)

[1] 국어와 얹

1. 언어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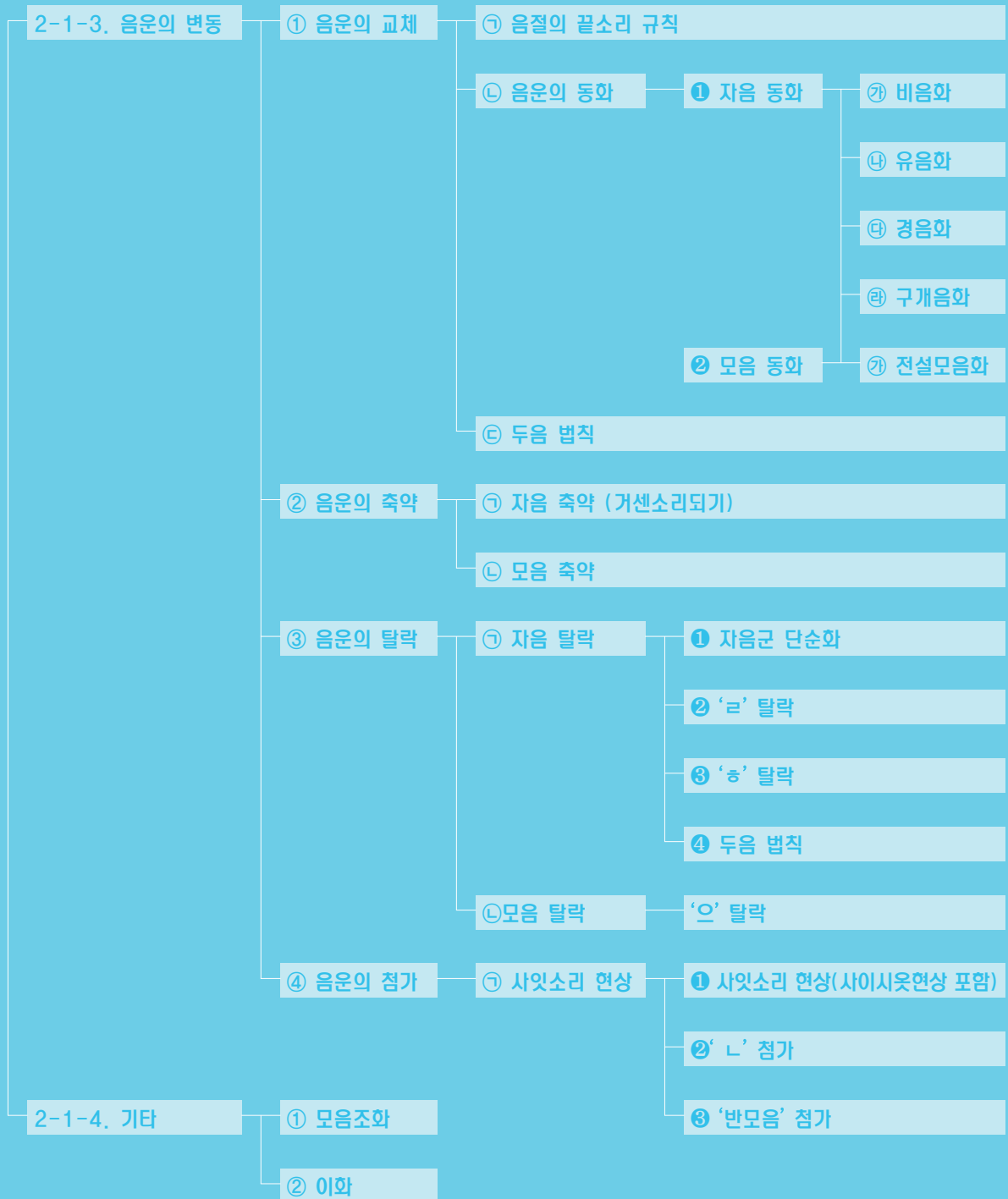
1-1. 언어와 인간		문법 1	2
1-2. 언어의 특성	① 언어의 기호성 ② 언어의 자의성 ③ 언어의 규칙성 ④ 언어의 체계성 ⑤ 언어의 창조성 ⑥ 언어의 사회성 ⑦ 언어의 역사성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음운론)	2-1-1. 음소	① 자음	㉠ 성대의 울림 여부 ㉡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문법 2	11		
		②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문법 3	13		
	2-1-2. 운소	장단, 연접, 역양		문법 4	14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5	25	
			㉡ 음운의 동화	① 자음 동화	㉢ 비음화 ㉣ 유음화 ㉤ 경음화 ㉥ 구개음화	문법 6	27
				② 모음 동화	㉦ 전설 모음화	문법 7	32
			㉢ 두음 법칙		문법 8	33	
		② 음운의 축약	㉣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문법 9	34	
			㉤ 모음 축약		문법 10	34	
		③ 음운의 탈락	㉣ 자음 탈락	① 자음군 단순화 ② ‘ㄹ’ 탈락 ③ ‘ㅎ’ 탈락 ④ 두음법칙	문법 11	35	
			㉤ 모음 탈락 ‘으’탈락		문법 12	37	
	④ 음운의 첨가	㉣ 사잇소리 현상	① 사잇소리현상 (사이사잇현상 포함) ② ‘ㄴ’ 첨가 ③ ‘반모음’ 첨가	문법 13	38		
	2-1-4. 기타	① 모음조화 ② 이화		문법 14	41		
	2-2. 단어 (형태론)	2-2-1. 형태소	① 형태소의 종류	㉣ 실질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자립 형태소 ㉦ 의존 형태소	문법 15	51	
② 이형태의 종류			㉣ 음운론적 이형태 ㉤ 형태론적 이형태	문법 16	52		
2-2-2. 단어		① 단어의 형성	㉣ 어간		문법 17	56	
			㉤ 어미		문법 18	56	
			㉥ 어근		문법 19	56	
		㉦ 접사	① 접두사	㉣ 파생 접두사	문법 20	56	
			② 접미사	㉣ 파생 접미사 ㉤ 굴절 접미사			
② 단어 형성 방식		㉣ 단일어		문법 21	57		
		㉤ 복합어	①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문법 22	58	
			② 파생어	㉣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문법 23	62	
			③ 명사		문법 24	71	
		① 불변어	㉣ 체언	② 대명사	문법 25	72	
③ 수사				문법 26	73		
㉤ 수식언				문법 27	78		
① 관형사	㉣ 성상 관형사 ㉤ 지시 관형사 ㉥ 수 관형사						

# 2-1. 음운

## 2-1-3. 음운의 변동 & 2-1-4. 기타





2-1.	2-1-3.	① 음운의 교체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음운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동화	① 자음 동화 ② 모음 동화	
			㉣ 두음 법칙		6

㉣ **구개음화** [口(입-구)蓋(천장-개)音(소리-음)化(변-화)]

[발음의 편의를 위해 발생]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굳이 → 구디 → [구지], 굳히다 → 구티다 → [구치다]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예사소리		(절약)	ㅈ		
파찰음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ㅑ			
울림 소리	비음	ㅁ	ㅂ			ㅁ	
	유음		ㅂ				

[구개음화의 원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굳이[구지] 밭이[바치]

[붙임] 'ㄷ'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굳히다[구치다] 닫히다[다치다]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열공 Tip! - 구개음화

- 구개음화 현상은 경구개음(센입천장 소리)이 아닌 'ㄷ, ㅌ'이 'ㅣ' 모음이 나, 반모음 'ㅍ'를 만나 경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해.

'ㄷ, ㅌ'이 'ㅣ'모음을 만나면 혀끝소리부터 여린입천장소리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ㄷ, ㅌ'을 'ㅈ, ㅊ'으로 이동하게 되면 혀끝소리만큼 이동거리가 절약되어 발음이 훨씬 수월해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구개음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구개음이 아닌 음운'이 '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열공 Tip! - 전설모음화**

• 전설모음화 역시 '化'를 기억하면 쉬울 거야. 전설모음이 아닌 음운, 즉 후설 모음이 'ㅣ'모음을 만나 전설 모음이 되는 현상이거든.  
그렇지만, 모음 동화는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지 않는 방언으로 인정되니까 이 점은 유의해야 해.

2-1.	2-1-3.	① 음운의 교체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7	
음운	음운의 변동		② 음운의 동화	① 자음 동화		㉠ 비음화 ㉡ 유음화 ㉢ 경음화 ㉣ 구개음화
				② 모음 동화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② 모음 동화** 중요 🍀🍀🍀🍀

: 일정한 모음이 주변의 특정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현상. 모음 동화는 대개 표준 발음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설 모음화('ㅣ'모음 역행동화)**

: 앞 음절의 후설모음 'ㅏ, ㅑ, ㅓ, ㅕ'가 뒤 음절에 전설 모음인 'ㅣ'가 오면 이에 끌려서 전설 모음 'ㅐ, ㅒ, ㅖ, ㅘ, ㅙ'로 변하는 현상.

표준 발음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고기 → [괴기], 어미 → [에미]

혀의 앞뒤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ㅘ ←	ㅓ	ㅕ
중모음	ㅒ ←	ㅖ ←	ㅑ	ㅓ
저모음	ㅐ ←		ㅏ	

[전설모음화의 원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9항》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ㅓ을 표준어로 삼고, ㅕ을 버림.)

ㅓ : -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ㅕ : -나기, 남비, 동당이-치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2절 모음



2-1.	2-1-3.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8
음운	음운의 변동		㉡ 음운의 동화	① 자음 동화	㉢ 비음화	
				② 모음 동화	㉣ 유음화	
		㉤ 두음 법칙	㉥ 경음화	㉦ 구개음화	㉧ 전설모음화	

㉤ 두음법칙

: 한자어로 된 단어의 ‘ㄱ, ㅋ, ㆁ, ㄷ, ㅌ, ㅍ, ㅈ, ㅊ, ㅍ, ㅊ’ 앞의 ‘ㄹ’이 ‘ㄴ’으로 변하는 현상

예) 로인[老人]→노인, 로동[勞動]→노동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례,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낙원(樂園), 내일(來日), 노인(老人)

ㄴ : 락원, 래일, 로인

-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열공 Tip! - 두음법칙

• ‘두음법칙’은 음운의 변동 중 ‘교체’와 ‘탈락’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 많이들 혼동하는 부분이거든.

한자어로 된 단어의 ‘ㄱ, ㅋ, ㆁ, ㄷ, ㅌ, ㅍ, ㅈ, ㅊ, ㅍ, ㅊ’ 앞의 ‘ㄹ’이 ‘ㄴ’으로 변하는 현상을 나타낼 경우는 ‘교체’에 해당하지만, 한자어로 된 단어의 ‘ㄱ, ㅋ, ㆁ, ㄷ, ㅌ, ㅍ, ㅈ, ㅊ, ㅍ, ㅊ’ 앞에서의 ‘ㄹ’과 ‘ㄴ’이 ‘ㅇ’이 되는 현상은 ‘탈락’에 해당되니까 꼭 구분하여 알아둘 것!





**열공 Tip! - 축약, 탈락, 첨가**

•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했던 '교체' 중에 예외적으로 '탈락'에 포함되는 개념들이 있으니 잘 구분해 둘 것!



**열공 Tip! - 자음 축약**

• 자음 축약 현상은 발음에만 반영되는 현상이고, 형태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즉,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열공 Tip! - 모음 축약**

• 반면, 모음 축약 현상은 발음 뿐 아니라 표기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형태도 축약된 모습으로 표기되니까 주의하자. ^^

2-1.	2-1-3.	② 음운의 축약	㉠ 자음 축약 (거센소리되기)	문법
음운	음운의 변동		㉡ 모음 축약	

《 음운의 축약과 탈락, 첨가 》 중요도 ★★★★★

: 축약과 탈락 규칙은 이어지는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결합되거나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규칙을, 첨가는 없던 소리가 삽입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② 음운의 축약

: 두 개의 자음이 이어지거나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제3의 한 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 'ㄱ, ㄷ, ㄴ, ㅈ' + 'ㅎ' → 'ㅋ, ㅌ, ㄲ, ㅊ'

예) 종단→[조:턴], 말형→[마텃], 축하→[추카]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하, 하)'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ㄲ]으로 발음한다.  
농고[노코], 앞뎨[안뎨]

[붙임1] 받침 'ㄱ(기), ㄷ(디), ㄴ(디), ㅈ(지)'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소리를 합쳐서 [ㅋ, ㅌ, ㄲ, ㅊ]으로 발음한다.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 모음 축약

: 두 개의 모음이 서로 만날 때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 이때 둘 중 한 모음은 반모음 'ㅣ'나 'ㅏ/ㅑ'로 바뀌어 실현됩니다.

예) 보아라→봐라[봐:라], 주어라→줘라[줘:라]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35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본말 : 꼬아, 꼬았다, 보아, 보았다  
준말 : 꺾, 꺾다, 봐, 봤다

-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2-1.	2-1-3.	③ 음운의 탈락	㉠ 자음 탈락	① 자음군 단순화	문법 11
음운	음운의 변동			② 'ㄹ' 탈락	
		③ 'ㅇ' 탈락			
		④ 두음법칙			
			㉡ 모음 탈락 - 'ㅇ' 탈락		

### ③ 음운의 탈락

: 인접한 두 개의 음운이 충돌하여 한 음운이 생략되는 현상.

#### ㉠ 자음 탈락

##### ① 자음군 단순화 중요도 ★★★★★

: 음절 말 겹자음이 올 때, 하나의 자음이 탈락되어 발음되는 현상

예) 뭉[뭉], 었다[엔따]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ㄷ’,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넋], 여덟[여덜], 할다[할따]

- 표준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 ② 'ㄹ' 탈락 중요도 ★★★★★

: 자음 'ㄹ'이 자음 'ㄴ, ㄷ, ㅂ, ㅈ'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딸 + 님 → 따님, 말 + 소 → 마소, 솔 + 나무 → 소나무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달-이)	따님(딸-님)	마되(말-되)
마소(말-소)	무자위(물-자위)	바느질(바늘-질)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부손(불-손)
소나무(솔-나무)	싸진(쌀-진)	여달이(열-달이)
우짚다(울-짚다)	화살(활-살)	

-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열공 Tip! - 자음군 단순화

•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헛갈려하는 경우가 많아, 2014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하면, 음절 말에 겹자음이 와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되어 발음되는 경우를 '탈락'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하는 개념이야.



#### 열공 Tip! - 자음 탈락

• 자음 탈락에서는 'ㄹ' 탈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발음에만 적용되는 현상이야.  
즉, 'ㄹ'탈락은 발음 뿐 아니라 표기에도 반영되니까 일반적인 탈락 현상과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 ^^



**열공 Tip!** - 용언, 어간, 어미, 접사

- 위 개념들은 '형태론'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다룰 거야. 선생님 이제 믿지? (해치지 않아. ^^) 긴장하지 말고, 전체적인 개념 이해에 집중하자!



**열공 Tip!** - 두음 법칙

- 앞에 나온 두음 법칙과 다른 현상을 구분해 둔 것이니까 잘 기억해 뒤. ^^

㉓ 'ㅎ' 탈락

: 용언의 어간 말 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비음,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많이[마:나], 싫어도[시러도]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2항-4》

'ㅎ(ᄒᆞ, ᄒᆞᆫ)'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낱은[나은], 쌓이다[싸이다]

-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㉑-1) 두음법칙

: 한자어로 된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같은 두음법칙 안에서도 교체와 탈락이 모두 나오니 개념을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예) 여자(녀자)[女子]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연세(年歲), 익명(匿名)

ㄴ : 년세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음을 인정한다.

냥(兩), 년(年)(몇 년)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양심(良心), 역사(歷史)

ㄴ : 량심          력사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 몇 리냐?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2-1.	2-1-3.			① 자음군 단순화	문법 11
음운	음운의 변동	③ 음운의 탈락	㉠ 지음 탈락	② 'ㄴ' 탈락	
				③ 'ㅇ' 탈락	
			㉡ 모음 탈락 - '으' 탈락	④ 두음법칙	

㉡ 모음 탈락 - '으' 탈락

: 어간 끝 모음 'ㅡ'가 어미 모음 'ㅏ, ㅑ'앞에서 탈락하거나, 어미 첫 모음 'ㅏ, ㅑ'가 모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끄 + 어서 → 꺼서, 가 + 아 → 가, 서 + 어 → 서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4. 어간의 끝 'ㄷ, ㅌ'가 줄어들 적

푸다 : (푸 + 어) 퍼

뜨다 : (뜨 + 어) 떠

-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 가아, 가았다, 켜어, 켜었다

준말 : 가, 갔다, 켜, 켜다

-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열공 Tip! - 모음 탈락

- 모음 탈락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야. 보통,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용언의 기본형을 떠올리고 어미를 구분하는 것을 연습해야 해.



14. 수능 A형

11.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빔],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뻬], 잡다 → [잡따]
- ㉢ 놓지 → [노치], 만형 → [마텥]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14. 9월 모의평가 A형

1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 보 기 > —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열차[그행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녀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같군.

③ ㉔, ㉕를 보니, '리'의 발음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④ ㉔, ㉕를 보니, 용언 어간의 '래'의 발음은 '얹-', '넓-'의 경우와 '뵈-'의 경우가 서로 다르군.

⑤ ㉔, ㉕를 보니, 동일 용언 어간의 '래'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13. 7월 학력평가 A형

11. <보기1>의 ㉔, ㉕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보기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기1 >

- ㉔ 나는 듣직한 만형이 좋다.  
[나는 듣지칸 마형이 조타]
- ㉕ 작문 시간에 해돋이를 주제로 글을 쓴다.  
[장문 시가네 해도지를 주제로 그를 쓴다]

< 보기2 >

- ㄱ.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들다.
- ㄴ. 두 음운이 만나 그 중의 하나가 탈락한다.
- ㄷ. 두 음운이 만나 그 중의 하나가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 ㄹ. 두 음운이 합쳐질 때 그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덧붙는다.

- |   | ㉔ | ㉕ |
|---|---|---|
| ① | ㄱ | ㄷ |
| ② | ㄱ | ㄹ |
| ③ | ㄴ | ㄷ |
| ④ | ㄴ | ㄹ |
| ⑤ | ㄷ | ㄹ |

빠른 정답





## 문법의 끝 [ 문법 I ] 빠른정답

문법 I	[06. 9월 모의평가 40-43번 비문학(언어)] — 언어와 인간 심리의 상관성	문법
	40 ② 41 ① 42 ④ 43 ②	4
문법 I	[14. 예비수능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개념	문법
	11 ②	15
문법 I	[13. 10월 학력평가 A형 11번] — 단모음 체계	문법
	11 ②	15
문법 I	[12. 수능 40-42번 비문학(언어)] — 한글의 표음성	문법
	40 ② 41 ② 42 ①	16
문법 I	[08. 수능 31-33번 비문학(언어)] — 개구도를 중심으로 한 음절의 특징	문법
	31 ① 32 ③ 33 ①	17
문법 I	[05. 수능 44-47번 비문학(언어)] — 문자 발달사에 따른 문자의 장단점과 한글의 문자적 특징	문법
	44 ② 45 ③ 46 ④ 47 ③	19
문법 I	[14. 수능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문법
	11 ③	42
문법 I	[14. 9월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문법
	11 ④	42
문법 I	[14. 6월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문법
	11 ④	43
문법 I	[11. 9월 모의평가 12번] — ‘겹받침’의 표준 발음 분석	문법
	12 ⑤	43
문법 I	[13. 7월 학력평가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문법
	11 ①	44

# 정답 해설





## 문법의 끝 [ 문법 1 ] 정답 해설

[06. 9월 모의평가 40-43번 비문학(언어)] - 언어와 인간 심리의 상관성 (본문 p. 4)

정답 40 ② 41 ① 42 ④ 43 ②

### [40-43 지문해설]

####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일반적 견해)	인간은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인식 ↓
		(개념적용)	이러한 심리구조는 언어 표현에도 반영 [예시]
중간	2문단	(구체적 사례)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 - 사은유 [예시]
	3문단	(개념의 확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의 상응 관계 [예시]
	4문단	(부연)	언어 표현이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예시]
	5문단	(이론의 한계)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님 [예시]
끝	5문단	(결론)	인간의 심리 작용은 언어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음

주제 : 인간의 심리와 언어 표현

#### 40 추론적 사고(주제 추론) 【정답 ②】

(정답 해설)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는 질문은 결론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을 찾아가면 된다. 결론에서 '인간의 심리 작용은 언어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다'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구조와 언어와의 관계를 언급한 질문을 찾으면 ②번이 답이 된다.

(오답 해설) ①번은 언어가 인간의 심리를 결정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4문단까지는 언어 표현이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했지만, 5문단에서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③번, ⑤번은 이 글의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고, ④번은 1문단에서 이미 확인된 부분이지만 이 글의 결론이 의도하는 바와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다.

#### 41 추론적 사고(개념의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A]에서 언급하는 '사은유'는 신체의 일부의 이름을 빌려 써서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귀' 역시 그 특징을 드러내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는 '입방아'이다. '입방아'는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렇쿳저러쿳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을 의미하는 데, 나머지 말들은 사물의 신체 부위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연결되는 반면 '방아의 입'은 '입방아'의 의미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번의 '말허리', ③번의 '상다리', ④번의 '병목', ⑤번의 '버선코'는 모두 사물에 신체 부위와 같은 위치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므로 '바늘귀'와 같은 사은유가 쓰였다고 볼 수 있다.

####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B]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의 상응 관계를 나타내는 예로, 단순한 개념은 표현도 단순하고, 복잡한 개념은 표현도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이것이 적용된 예로 '사람+들'을 사용했는데, 단수인 '사람'에 '들'이라는 접사를 붙여 복수인 '사람들'을 나타냈다. 이는 단순한 개념인 '사람'은 단수로, 복잡한 개념인 '사람들'은 단수에 접사를 붙인 복잡한 형태로 실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번은 동사 어간에